권총 6자루·실탄 밀수

국내 폭력조직 연관 추정

국내 폭력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밀수사건이 발생, 국정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공동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종전 러시아 국적 선원들이 개인 휴대용으로 몰래 반입하다 적발된 것과는 달리 폭력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밀수사건으로, 당국이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부산세관에 도착한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 내에 숨겨진 권총 6자루와 실탄을 적발,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권총과 실탄은 컨테이너에 담긴 대형 난로의 쓰레받기 속에 몰래 감춰져 있었다"면서 "미닫이 형태의 쓰레받기가 용접돼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조사관들이 용접을 뜯어내고 권총과 실탄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번 총기류 밀반입 사건이 국내 폭력조직 또는 일본 내 폭력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 반입경로와 반입주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공 혐의'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에는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파나마 국적 170t급 선박을 통해 러시아 마피아가 다량의 총기를 밀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 단속에 나섰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같은 해 미국 군사우편터미널을 통해 공기총 한자루와 실탄 300발, 권총 3자루와 실탄 20발 등 두 건의 밀반입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폭력조직과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밀수입 사건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 /연합뉴스

가스검침원·택배원 위장 가정집 침입 강도 잇따라

가스검침원이나 택배원을 위장, 가정집에 침입한 뒤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광주 광산경찰은 20일 특수강도 혐의로 김모(20·광주시 북구 우산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2일 낮 12시40분께 "가스레인지 후드를 점검하러 왔다"며 광주시 광산구 H아파트 박모씨 집에 들어가 현금과 돌반지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광주 서부경찰도 이날 택배원으로 가장, 가정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 상해)로 김모(42·광주시 서구 화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내부 점검이나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경우 현관 출입문의 걸쇠를 걸어놓고 신분 확인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르포 - '특별 재난지구' 완도 양식장 피해 현장

폭우로 민물 유입 어패류 떼죽음

장마기간 바닷물 염분 농도 급격 감소

수확 앞둔 다시마 등 해조류 녹아내려

폭우 피해는 논밭을 일구는 뭍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육지에서 흘러들어온 민물(淡水)이 바다의 소금기를 뚝 떨어뜨려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간 뒤끝, 며칠째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완도 바다는 일반인에겐 생소한 바다생물의 생(生)과 사(死) 메커니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원…."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이영석(43)씨는 연방 끌채로 이미 죽어버린 우럭을 건져내며 연 이틀째 장대비를 퍼붓는 하늘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태풍이 지나가고 며칠 뜸하더니 다시 쏟아지는 장맛비에 몇 마리 남은 것들마저 죽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코를 찌른다.

20일 오후 3시, 동고리 앞바다에 있는 이씨의 우럭 양식장은 수마(水魔)가 할퀴고 간 흔적이 역력했다. 가두리 상판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군데군데 길이 끊겨있고, 어망도 찢어진 곳이 여기저기 보였다. 가두리 안에는 죽은 우럭이 가득했다.

완도지역의 경우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지난 10년이래 최고치인 594.9㎜의 비가 쏟아졌다. 이때문에 평소 30~33‰(퍼밀·천분율)이던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25~28‰로 급격히 감소, 어패류와 해조류가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죽은 우럭이 265만3천 마리, 넙치는 8만9천 마리, 돔 등 다른 어류도 13만6천 마리에 이른다고 완도군은 집계했다. 어패류나 해조류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복·굴은 물론 다시마·톳·김도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갔거나, 묽어진 바닷물에 녹아내렸다.

"태풍이 끝날만하니까 장마까지 겹쳐, 제대도 복구 한번 못해보고 앉아서 당했습니다.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날이 좋아져도 걱정입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승만(43)씨는 "죽은 것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있는 우럭들마저 죽기 때문에 보는 족족 건져 올리지만, 일손이 딸려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이곳 양식장은 29칸의 가두리 틀(가로 7m·세로 7m짜리 4개 기준) 가운데 17개가 완전히 부서졌다. 어망 3개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어망에 있던 물고기 5만5천 마리를 잃었다. 피해액만도 약 8천만 원에 달했다.

가두리 틀을 새로 만드는 비용은 500만~700만원. 반영구적인 폴리염화비닐(PVC)로 된 틀은 나무보다 200만원 정도 비싸다. 육지에서 틀을 만들어, 바다에 띄워 양식장까지 끌어와야 한다. 성인 6명 정도를 동원해도 완전히 복구하려면 보통 3~4일 걸린다.

이씨는 "그나마 완도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구작업에 착수,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로 완도는 113억1천5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중 12개 읍·면에 있는 2천191어가(漁家)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59억원에 달했다.

/완도=정은조·이승배기자 ejchung@kwangju.co.kr

"자식같이 키웠는데…" 호우주의보가 내린 20일,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영석씨가 죽은 우럭들을 건져내고 있다. /완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건설노조 오늘 광양서 대규모 집회

'전남 동부·경남 서부건설노조'(위원장 윤갑인재)가 광양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남 동부·경남 서부건설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간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여수건설노조'(위원장 이기봉)와 연대해 2개 노조 2천50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집회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로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측이 대체인력 투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시위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포항처럼 사무실 점거농성을 벌일 것으로 보고 20개 중대 2천여명을 광양제철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노조원들이 광양제철소 직원들의 출·퇴근 저지를 위해 금호교 등 광양제철 인근 3개 교량과 국도 2호선을 점거할 것에 대비, 이곳에 병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한편 '전남 동부·경남 서부건설노조'는 지난 10일 광양 서천변공원에서 1천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갖고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 측은 ▲15% 인상 보장과 ▲원청의 공사원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 측인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회사협의회'(회장 반재경)는 ▲기능공 2% ▲조공 1%의 인상안을 내세우고 있어 교섭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공업용 에탄올로 가짜 양주 대량 제조

쌍나팔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의약품용으로 쓰이는 공업용 에탄올을 이용해 가짜 양주를 대량 제조한 권모(30)씨 등 일당 4명을 구속.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3월 초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모 업체 창고 등 2곳에서 가짜양주 제조기구를 설치해 놓고 공업용 에탄올·저급 국산 양주·색소 등을 섞는 방식으로 가짜 양주 4천200여병,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을 제조해 유흥주점 등에 판매한 혐의.

○…이들은 양주 제조회사들이 가짜양주 제조방지를 위해 개폐가 불가능한 이중 마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바늘이 달린 주입기를 사용하는 등 정교한 범죄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양주를 마실 경우 심한 두통과 숙취에 시달리게 된다"며 "가짜양주의 경우 흔들었을 때 기포 발생이 진품보다 많고 기포가 사그라지는 속도도 느렸지만 이번에 적발된 가짜양주는 기포 발생이 진품과 거의 동일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교사, 중등교사, 보건교사, 유치원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용교사 임용시험을 구분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해결하려면 우선 다양하고 정교한 합격커리큘럼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학생규모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비교 우위의 최고 강사진이 전공과목별로 담당해야 합니다. 본내영 교육학의 교수진은 하루, 이틀에 구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수많은 합격자들을 배출한 높은 합격률로써 입증된 최고 강사진 입니다. 그러므로, 합격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교원임용시험은 교수진이 최고여야 돼"
여름방학 특강 개강 7월 1일(현재 예약접수중)
▶ 교육학/곽내영 선생 ▶ 국어/최병해 교수 ▶ 국어교육론/마운용 교수 ▶ 영어/송옥 교수
▶ 수학/임대성 교수 ▶ 과학교육론/장영민 교수 ▶ 물리/장영민 교수 ▶ 화학/이영철 교수
▶ 생물/강치욱 교수 ▶ 지구과학/박명순 교수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미술/김성희 교수 ▶ 음악/박성선 교수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전국 최강의 강사진 만을 모셨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교원임용 동영상 강의
에듀뷰넷
http://www.eduview.net
생생한 학원강의를 원하는 시간·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수강가능!
전국최고의 유명강사진 총집결
교육학 곽내영 / 유아교육 임미선 / 미술 김성희
국어 최병해팀 / 영어 송옥 / 수학 임대성
체육 김용호팀 / 공통과학 장영민팀 / 일반사회 김형수
현재 성황리 강의중
문의 : (02)816-1646

경찰의 꿈을 이루는 곳!
광주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합격을 앞당기는 시스템
-매월 1일, 15일 개강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 모두 수강가능
◎2개월 종합반 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자습실 사용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사물함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심화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월 실전모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차별화 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 형법 조태엽 교수 /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 영어 오순아 교수 / 영어 정보열 교수
합격의 영광 뒤에는 김재규경찰학원이 있습니다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남여고 후문 앞 www.police3112.net

공무원 여름방학 2차개강
8월 1일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뒤 222-4560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 매일 40문항 모의시험 문제풀이 ◁◁
8월 1일 개강
오전반 9:2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을 치른 후 10:10부터 핵심요약정리와 모의시험지 해설강좌를 통해 최종 합격점검을 할 수 있는 강좌임
야간반 18:30까지 입실하여 40분간 모의시험 치른 후 19:10부터 문제풀이 해설강좌 진행
" 원서접수 반습니다. "
광주고시학원 www.gwangjugosi.com ☎ 227-8003 도청 앞 진일빌딩 뒤 / 지하철 도청역 8번출구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 - 김영
호남유일의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강좌
MEET/ 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편입 / 약대, 한의대편입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개강:8월 1일 ☎ 227-8088